

이슈

2

2020년 4월 3·4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제3303호

장근석 모친 수습억 탈세

“어머니 독단 경영 탓... 난 사건과 무관”
장근석 측, 새 회사 세워 독립할 뜻 밝혀



장근석

연기자 장근석이 소속사 대표이자 어머니가 역외 탈세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사과하며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고 향후 새 회사에서 독립한다”고 밝혔다.

장근석의 어머니이면서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모씨는 아들의 해외활동 수입을 해외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습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3월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2018년 7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김병건 전 트리제이컴퍼니 이사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장근석의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면서 장근석은 본업에 충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근석은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일절 공유 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이번 일은 “그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이며 책임 역시 어머니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건 이사는 장근석의 향후 활동에 대해 “새로운 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라면서 전역 이후 그가 독립적으로 일할 것임을 밝혔다. 유지해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4·15총선 후보들의 ‘연예인 가족들’



낮익은 연예인들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일부 후보들의 가족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연기자 박정숙은 미래통합당 이재영 후보의 부인, 윤세인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딸이다. 유오성은 형인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가, 심은하는 남편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가 출마했다. (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표심 잡는 ‘별들의 내조 작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2일 시작되면서 각 후보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유명세를 얻은 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후보들은 어쩔 수 없이 눈길을 끈다. 전직 지상파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들의 도전도 있다. ‘연예인과 4·15총선’의 관계를 ‘TM I’(too much information)로 살폈다.

● 유오성부터 이하나까지... ‘연예인 가족’

“동생이 유명인이라 힘이 됩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강원 흥천·횡성·영월·평창) 후보가 최근 SNS에 쓴 글이다. 그의 동생은 배우 유오성이다. 평소 연기 외에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은 유오성은 형을 물심양면 돕고 있다. 지역 구 주민과 만남은 물론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가족 유세’까지 남다른다.

반면 부모가 총선에 출마한 연예인 자녀들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평소에도 독립적인 활동을 원한다는 의미로 예명을 내세우지만, 그렇다고 정치인 부모와 선을 긋지도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서울 송파) 후보의 아들은 가수 최나타이다. 본명은 최정호. 인디음악을 하는 그는 지난해 한 음악프로그램에서 “(부모 도움 없이)아라비야트를 하고 기타 레슨으

유오성, 형 위해 유튜브 가족 유세 연기자 윤세인 아버지의 일등 지원군 남편 돕는 박정숙, 아이디어뱅크 영원한 스타 심은하, 조용한 응원

로 돈을 벌어 음악을 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 사상) 후보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도 ‘노엘’이란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기자 윤세인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 후보의 딸이다. 드라마 ‘폼나게 살거야’ 등에 출연한 그는 “오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지수라는 본명 대신 예명을 쓴다. 김 후보가 2012년 총선,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지원군을 자처했다. 특히 대구시장 유세 때는 시민들과 토크 콘서트에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깜짝 고백했고, 이듬해 결혼했다.

은퇴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타’인 심은하는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는 대신 조용히 내조한다. 남편인 미래통합당 지상욱(서울 중구성동) 후보의 2016년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당시 당선 확정 직후 지 후보는 “집사람은 가장 큰 후원자이자 친구”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과 용기를 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드라마 ‘대장금’으로 알려진 방송인 박정숙의 남편은 미래통합당 이재영(서울 강동) 후보다. 지난 총선 때 한복을 입고 남편의 유세에 동행한 그가 이번엔 어떤 아이디어로 동참할지 호기심을 모은다. 지계가족은 아니지만 무소속 문석균(경기 의정부시) 후보는 배우 이하나의 이종사촌 오빠이다.

● 전직 아나운서들의 대결... 고민정 VS 배현진

지상파 방송사 아나운서 선배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KBS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 후보와 MBC 출신인 미래통합당 배현진(서울 송파) 후보다.

각각 40대 초반, 30대 후반인 이들은 ‘젊은 피’에 속한다. KBS 퇴사 후 청와대 대변인을 거친 고민정 후보가 아나운서 시절 ‘스펀지’ ‘무한지대 큐’ 등 주로 친근한 교양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배현진 후보는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았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총선에 뛰어들 두 후보 중 누가 금배지를 달지 시선이 쏠린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미국을 감동시킨 베테랑 추신수의 선행

마이너리그 191명에게 1000달러씩 생계 자금

총액 2억 3000여만 원 톤 큰 기부
코로나19 안이한 대응엔 쓴소리도

‘베테랑의 품격’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추신수(38·텍사스)가 미국 현지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도움의 손길부터 쓴 소리까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신수 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베테랑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다.

ESPN, AP통신 등 유수의 미 현지 매체는 2일(한국시간) 일제히 추신수의 선행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추신수는 텍사스 산하 마이너리그 선수 191명 전원에 대해 각 1000달러(약 124만 원)의 생계 자금을 지원했다. 총액은 19만1000달러(약 2억3700만 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5월까지 마이너리그들에게 매주 400달러(약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1일 결정했기 때문이다. 추신수가 베푼 금액은 사무국이 주는 2주치 금액보다도 많다. 특히 엘리 화이트에게는 추신수가 지급받는 일주일 식대(밀 머니·1100달러)를 매주 보내주기로 했다.

‘눈물 젖은 빵’을 기억하기에 가능한 선행이었다. 추신수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나도 마이너리그에서 7년간 뛰었다. 금전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지금 마이너리그들의 상황이 당시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작 본인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추신수는 “20년 전 미국에 왔을 때 가진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지금은 야구 덕에 많은 걸 누리고 있으니 돌려줄 때”라고 설명했다. 추신수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쓴 소리로 아까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잦아드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2일 오후 기준 확진자 20만 명을 넘어섰다. 13일 만에 20배로 급증했다. 스프링캠프가 취소되고 보름이 지났지만 추신수가 외출한 건 단 두 차례, 식료품 구매를 위해서였다. 이때 상점은 물론 공원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보고 답답함을 표했다.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는 건 사람들이 심각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텍사스 선수단은 물론 감독, 프런트까지 추신수를 ‘클럽하우스 리더’로 인정하는 건 단지 나이, 연봉 때문만은 아니다. 위기에서 발휘된 베테랑의 품격이 추신수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식당에서 가정에서 만능소스하나로 요리를 손쉽게 간편하게~

매콤조림소스 2kg & 멸치육수2kg - 조림류, 볶음류, 탕류, 부대찌개 등 어디에도 어울리는 만능소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어디 다 하소연할 곳도 없는 일선 식당이나 외식사업에 힘겨워하는 사장님들께 가정의 주부님들께 요리의 다변화와 간편하고 손쉬운 메뉴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불황극복에 가장 적합한 품목으로 외식 사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멸치육수’와 ‘매콤조림소스’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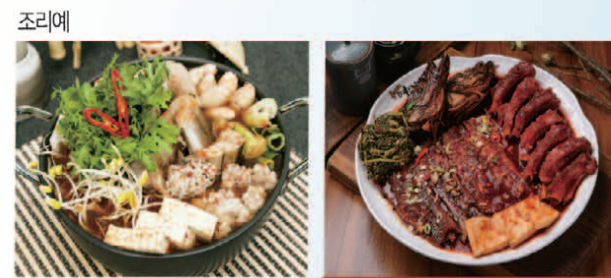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컨셉의 아이템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깨진 항아리에 언제까지 물 붓기를 할 것인가? 변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나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계절을 타지 않으면서 남녀노소 구분 없는 품목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아이템이라면 일단은 기본은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 외식사업의 3대 제왕이라는 조류독감, 광우병, 구제역으로 무관한 품목이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계절에 상관없이

국민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찌개류와 조림류에 적합하고 어느 요리도 맛의 깊이를 낼 수 있다. 아예 먹었어도 오늘 다시 먹어도 질리지 않으면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감칠맛은 가족의식으로 직장인들 회사 메뉴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도 늘 한결같은 맛으로 선택받는 메뉴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맛이 선택되어야 하지만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경쟁업체들 가운데, 다른 곳들과는 차별화된 맛을 구축하고 경쟁력까지 높일 방법을 찾는다면 바로 소스의 맛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만큼 엄선된 식자재만을 사용해 내 가족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스를 판매하는 이곳은 대량생산은 물론 소량생산, 소포장 납품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경기는 물론 부산, 해남, 대전 등 전국맛집에 ‘멸치육수’와 ‘매콤조림소스’를 납품 중이며, 업종 변경 및 추가품목을 원하는 곳이라면 자체한 견적문의 및 제품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하면 친절히 답변해 주고 있다.



유음구입시 38,000원혜택!!
택배비 4000원 별도입니다



멸치육수가 들어간 동태탕

매콤조림소스가 들어간 코다리 등갈비찜

만능소스로 간편하게 손쉽게 멸치육수2kg 매콤조림소스2kg
요리를 업그레이드 ~ 18,000원 22,000원



조림류, 볶음류, 탕류, 부대찌개 어떤 요리에도 간편함을 느낄 수 있는~ 매콤조림소스·멸치육수 / 문의 02) 777-0322